



‘달빛나루 희망 熱기’

광영진월초, 재능기부 봉사활동 실시

진월초등학교는 지난 7월 학내 중도마을을 찾아 2017. 재능기부 봉사활동 ‘달빛나루 희망 熱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달빛나루 희망 熱기’는 그간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가진 끼와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만들어진 반교민의 특색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30여명의 중도마을 주민들은 오키나와 연주, 리코더 연주, 율동 등을 학생들이 선보이자 탄성을 지르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특히 사람들이 공연에서는 어르신들의 아예가 절로 올라가는 흥겨움이 더해지기도 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관교 학생회 회장은 “우리가 준비한 공연에서 학생들이 할마니들이 호응과 큰 박수를 보내주셔서 매우 뿌듯하였다.”며 “내가 가진 작은 실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들을 계속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교정은 “이번 활동을 통해 ‘함께 나누고 봉사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내적 성장’을 기대해 왔는데, 준비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이 진지하게 성숙어진 태도에 감격 놀랐다.”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최준열 기자 ©

강진교육지원청,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 박차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배 건)은 지난 10일 강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관내 초·중·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학생스포츠클럽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꿈·탐색주간을 활용하여 학생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활성화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관내 학교에서 스포츠클럽을 진행할 때 학생들 스스로 리그전을 운영하고 이번 연수를 받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심판을 볼 수 있도록 학생 심판의 전문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전문 강사의 설명과 함께 농구의 용어 및 규칙, 심판으로서의 자세 등 이론을 익히는 한편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 모두 열정적인 태도로 연수에 참여했다.

연수에 참여한 강진중 학생은 “농구 농구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농구심판 교육을 통해 경기규칙과 심판법 등을 배우고 농구심판이라는 이색적인 직업을 체험해보니 참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 건 교육장은 “경기를 진행하고 판정하는 심판의 역할과 임무는 출전 선수 못지않게 중요한 키포인트”라며 “이번 연수를 받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자치회 중심의 교내스포츠클럽 리그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교육지원청은 다양한 종류의 심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진로에 따른 스포츠스펙트럼을 물론 건강증진을 위한 교내 또는 인근 학교 교내스포츠클럽 리그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손혁열 기자 sdw

‘꽃과 나무와 시가 있는 풍경’

무안고, ‘꽃·나·시 프로젝트’로 창의·융합형 인재 키워

무안고등학교는 학교 회단에 학생들의 시화 작품 50여점을 설치하는 ‘꽃과 나무와 시가 있는 풍경’, 일명 ‘꽃·나·시 프로젝트’를 통하여 2015 개정교육과정에 발맞춘 인재를 육성 중이라고 밝혔다.

‘꽃과 나무와 시가 있는 풍경’은 6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매달 학생들이 직접 시를 짓고 사진을 넣어 편집한 작품을 학교 회단 곳곳에 배치하는 프로젝트이다. ‘꽃·나·시 프로젝트’는 정현성 교장의 생각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문학적 감수성’은 물론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중 하나인 ‘심미적 감성’을 키워 새로운 시대에서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를 통해 상상시에는 그냥 풍로의 기능만 하던 길이 친구들과 시를 보며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소통과 감성의 공간으로 변했다. 최다현 학생(무안고 1학년)은 “친구들의 시를 읽으면서 냉정하게 보았던 친구들에게 이러한 감성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또한, 어색했던 친구에게 시의 의도를 물으면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 시화 작품을 만든 정태희 학생(무안고 1학년)은 “친구들이 직접 지은 시를 읽어 준다는 사실



에 뿌듯함을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시와 어울리는 배경을 편집하면서 미적인 감각 또한 향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무안고등학교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새 출발을

하며, 작년에는 전국 100대 교육과정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지역 인재를 키우는 산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무안고에서 배출 될 창의 융합형 인재가 기대된다.

홍사범 기자 hsb

순천정원유치원, 인성을 키우는 학부모 몇내기

자율무지개유치원 안전교육·학부모 연찬회 실시



“실력 갖춘 인재양성 최선 다하자”

영광교육지원청, 유·초·중 교(원)장 연찬회 성료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나동주)은 6일 대회의실에서 유·초·중 학교(원)장, 교육지원청 팀장, 장학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류방학 대비 ‘2017학년도 유·초·중 학교(원)장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팀별 1학기 주요업무 실천사항 안내, 방학 중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생활지도 계획 수립,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교직원들의 각종 연수활동 적극참여, 정밀교육 준수, 여름철 예지절약 추진 등을 협의했다.

나동주 교육장은 “영광교육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학부모 아카데미 등 상반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영광교육 운영 성과에 감사드리며, 여름방학 중에도 모든 학교가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개정교육과정, 학력, 토론회, 인성, 안전교육 등 미래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원격연수 과정 안내, Web센터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 내방상담 활동 참여 독려와 효율적인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성열 기자 jsw

전남 교육 소식



함평교육지원청,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 개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강대영)은 7월 6-7일 경상북도교육지원청 교육가족과 함평관내 교육가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교육지원청과 학다리중앙초등학교, 함평월야중, 일강 김철기념관 등 함평군 일원에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단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경상북도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이번이 두 번째 함평 방문이다. 고령교육지원청 소속 교감 중심의 장학지원단은 창의·인성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 정보교류를 위해 방문했다.

강력 고령 교육 가족들은 학다리중앙초등학교와 함평월야중을 방문해 학교별 인성교육 우수사례, 특색 교육활동 등을 공유하였으며, 체험학습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일강 김철기념관을 탐방했다.

함평 교육자들은 “함평과 고령의 우수 교육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양 교육지원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 선생님의 사진, 유품과 함께 독립운동 당시의 각종 활동했던 자료와 회의 장면 등이 재현되어 있는 기념관 탐방으로 뜻 깊은 워크숍이 되었다”고 말했다.

함평교육지원청은 “영·호남 교육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 교육프로그램의 공유와 협력으로 행복한 고령, 함평교육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사범 기자 hsb

해남교육지원청, 전통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식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중남)은 7월 10일 해남공누리센터에서 2017. 자녀 진로 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통한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실시했다.

이번 전통놀이지도사 양성교육은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1회씩 총 10시간 교육을 실시하여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했다.

수료생들은 해남, 완도, 진도 학부모 6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가운대 다문화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통놀이의 흥미와 새로움을 더해 주었다.

전지 잊혀져가는 놀이의 재현을 통해 수료생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적극 수업에 동참하여 웃음이 시종 떠나지 않는 풍경이 연출되었다.

해남교육지원청은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수료생들은 “복색” 학부모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인성교육이 높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아이들을 연결해주는 기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중남 교육장은 “문화는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키워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믿음과 수료생들이 학교뿐 아니라 우리아이들이 있는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전통놀이를 전파하는 찾아가는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kyy

(유) 하나로합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198-1번지

방역 (학부모회) / 관공 관리 / 자수로 청소

전화: 061)324-5222 / FAX: 061)323-0036

TEL: 106)31324-5222 / H.P: 010-8888-3679 E-mail: hsb5222@hanmail.net

TEL: 061)324-2931 / H.P: 010-8514-8006

영업종목

- 간이상수도청소
- 공간소독
- 무인자동살균

방역, 살균, 살충은 하나로방역!!!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기업